

선교사명에 충실한 공동체로 나아가길

김종원 신부, 마이클 밀러 밴쿠버 대주교와 성 김효주 아녜스 성당 취임미사 봉헌

【브리티시 콜럼비아】성 김효주 아녜스 성당 2대 주임 김종원 비오 신부 취임미사가 지난 15일 봉헌되었다. 마이클 밀러 밴쿠버 대주교가 집전한 취임미사에는 올세인트 본당 돈라슨 주임 신부와 프란치스코 보좌 신부, 성 김대건 성당 신현만 시몬 주임 신부가 함께했고, 400여 명의 신자가 참석했다.

밀러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먼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 다음 사도들을 파견하셨고, 돌씩 짚어 파견하시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나가라고 하셨다. 이는 도구를 가진 것이 중요하게 아니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의 도움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교사명에 충실한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새 주임사제와 협력하고 영적지도자로서 의지하면서 김 신부의 사목에 도움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진 취임예식은 문영석 시몬 부제의 발령장 낭독에 이어, 밀러 대주교는 김신부를 인도해 성전 안의 세례대와 독서대, 제



성 김효주 아녜스 성당 2대 주임신부 취임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마이클 밀러 밴쿠버 대주교와 김종원 주임신부.

대, 제대앞, 고백소, 감실과 사제석, 성전입구를 순례하며 각각의 직무를 설명해주며 전례의 의미를 알려주고 축복해 주었다.

미사에 이어진 축하식에는 화동과 이웃 성 김대건 성당 사목회의 꽃다발 증정과 성가대의 축가로 신자의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했고, 친교실에서 모든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케익 커팅과 떡과 과일을 나누며 취

임식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성 김효주 아녜스 성당에 부임한지 두달을 넘긴 김종원 비오 신부는 어린이부터 시니어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며 밴쿠버의 설립된 두번째 한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사/사진 제공: 김미정 루시아, 임영애 아녜스

율법에 대한 또 하나의 이해

뉴욕지역 KCLC, 하태수 신부 초청해 일일피정 가져



뉴욕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가 주최한 일일피정 참가자들이 하태수 신부의 강의를 듣고 있다.

【뉴저지】뉴욕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NYKCLC)가 주최하는 일일피정이 하태수 신부(예수회) 지도로 지난 7일 뉴저지 가톨릭 회관에서 회원 45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율법에 대한 또 하나의 이해 “묵인 것을 풀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피정에서 하태수 신부의 제1, 2 강의, 미사와 미사 중 유가서약 갱신식이 진행되었다.

하 신부는 “율법이란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인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하느님의 사랑 행위였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하느님 사랑의 본질적 정신의 의미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적 형태의 율법으로 변해갔다.

율법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교범으로 우리의 자아(ego)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고 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율법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끝없는 투쟁으로 죽음에까지 이르셨으며, 우리를 그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으로써 훌륭한 메시아직을 수행하신 우리의 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덧붙였다.

용서와 관련해 하 신부는 “우리는 왜 용서가 필요한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 죄로 묶는 것이다. 묶인다는 것은 종살이이며 여기에서 풀려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며 억압에서 풀려나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하느님을 체험함으로써 풀려가는 것이 이나시오 영성”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매일의 기도와 의식성찰로 무의식의 상처를 하나씩 풀어가고 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당부했다.

이번 피정에서 예기치 않은 회관 사정으로 개인 성찰이나 전체 나눔이 생략되어 아쉬웠으나 모든 참석자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을 확인하며 일정을 마쳤다.

기사/사진 제공: 객신규 루시아 안현정 소화데레사

세상의 갑옷이며 방패인 부부의 손

성 스테파노 월밍턴 한인성당 솔즈베리 공소, 전신자 성지순례 및 혼인갱신식

【델라웨어】성 스테파노 월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주임 김태근 베드로 신부)와 솔즈베리 공소신자 80여 명이 1 일 전신자 성지순례로 메릴랜드에 위치한 미국 최초의 바실리카 내셔널 슈라인(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과 메리 퀸 대성당(Cathedral of Mary Our Queen)을 5월 27일 다녀왔다.

이날 17부부의 혼인갱신식도 진행되었는데 순례단의 마음을 흔들고 눈물 짓게 했던 강영길 요셉·권향자 마리아가 남독한 ‘부부의 손’을 소개한다.



성 스테파노 월밍턴 한인성당과 솔즈베리 공소 신자가 다녀온 ‘일 성지순례’ 중 열린 혼인갱신식 모습.

부부의 손

사랑하는 부인!

당신이 잡고 있는 그 손은 바로 힘 있고 강한 그리고 사랑으로 활기가 넘쳐흐르던 손입니다.

당신이 저를 배우자로 맞아들이던 결혼식 날, 당신의 손을 잡아 주었던 그 손입니다. 제가 일생 동안 당신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바로 그 손입니다.

또한 그 손이 바로 당신의 임신을 기뻐하며 부른 희망을 걸었던 손입니다.

또한 제가 당신의 뱃속에서 뛰놀았던 지금 우리들의 자녀를 어루만졌던 손입니다.

그렇게도 크고 땀 없이 보였던 그 손이 당신과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느라 온갖 노력을 다했던 손입니다.

당신이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이 당신과 가족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집주위의 물건들을 치우고 수리하느라

연장에 상처 입었던 손이며 가정의 행복을 위해 모든 굴욕과 수치도 감내하던 바로 그 손입니다.

이 손이 당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손입니다.

두려움과 슬픔으로 당신 마음이 괴로웠을 때, 당신을 보호하고 감싸

주며 지켜주었던 바로 그 손입니다.

또한 당신이 병들고 아파 신음했을 때 당신을 감싸 안으며 위로해 주었던 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쳐 쓰러지기 전에 함께 가자하며 당신을 일으켜 세운 손입니다.

이 손이 당신에게 사랑의 신비를 생생하게 가져다주기 위하여 기나긴 세월 동안 당신 몸을 어루만져 주었던 손입니다.

당신이 남편의 눈을 들여다보려고 얼굴을 들었을 때, 당신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차, 당신 머리와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던 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이 손이 바로 결혼식 날 제가 당신을 사랑할 것을 굳게 서약하며 당신이 끼워주었던 반지를 받았을 때, 당신께 일생을 맡겼던 바로 그 손입니다.

그렇게도 곱고 생기 넘쳐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이 없으리라고 믿었던 그 손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서 수천 번 설거지를 하느라고 수만 번의 빨래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밥상을 차리느라고 지금은 그렇게 주름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이 손이 바로 셀 수 없는 칼질과 다림질, 뜨거운 프라이팬을 만지느라 불에 덴 바로 그 손입니다.

당신이 잡고 있는 그 손이 바로 당신은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해 주면서 기쁨과 흥분으로 당신을 껴안아 주었던 손입니다. 그 때마다 당신과 함께 세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 손이 바로 포근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한 번 더 감싸 안았으며 자녀들이 아파 당신이 어찌할 줄 모를 때, 그 자녀들의 고통을 덜어 주었던 손입니다.

다시 한 번 제 손을 눈여겨보십시오.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아이들의 웃을 껴매주었고 도시락을 정성껏 담아주었던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 근심스런 나머지 당신 두 손을 꼭 잡아 주었던 손입니다.

이 손이 바로 당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의 목과 등을 안마 해주면서 긴장을 풀어주며 위로해 주었던 손입니다.

그 손이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열정적인 삶으로 당신을 어루만져 주었던 손입니다.

잡고 있는 그 손이 바로 탄복과 존경심에서 당신께 소리 내어 울고 있을 때,당신 얼굴을 세워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었던 바로 그 손입니다.

기사/사진 제공: 김신희 마카엘라

2018년 북미주 성령대회 31차 남가주

“너,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9

일시: 8월 25일(토) 오전 8시-오후 10시
26일(일) 오전 8시-오후 6시

장소: 레돈도 비치 퍼포밍 아트센터
Redondo Beach Performing Arts Center
1935 Manhattan Beach Blvd., Redondo Beach, CA 90278

등록 참가비: \$25(예약시 \$20) *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불가
입장권 구입 및 문의: 각 분당 성령기도회 및 봉사회
(담당자: 성령쇄신 연합 봉사회)
714-595-3488, 714-595-4796
이메일: kcrm.catholic@gmail.com
후원: 남가주 사제 협의회, 남가주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가톨릭평화신문, 가톨릭신문, 북미주 사제협의회, 북미주 성령봉사회

주최:  남가주성령쇄신연합봉사회



김상진 신부
-북미주 사제협의회 회장
-라스베가스 평화상 바오로 성당 주임



백운택 신부
-북미주 성령봉사회 회장
-미동북부 성령봉사회 지도
-뉴욕 락틀랜드 주임



정건석 신부
-북미주 성령봉사회 부회장
-중남부 성령봉사회 지도
-중남부 사제협의회 회장
-오스틴 한인성당 주임



한상만 신부
-북미주 사제협의회 부회장
-밴투라 주임



전홍식 신부
-북미주 성령봉사회 부회장
-남가주 성령연합 봉사회 지도
-샌 클레멘테 주임